

삶 · 예술 이야기 담은 '숨歌가춤' 공연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공연제작 예능풍류방 레지던시 기획공연 29일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2023년 무형유산 공연제작 예능풍류방 레지던시 기획공연 '숨歌가춤'을 오는 29일 오후 4시 일주마루 대공연장 무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예능풍류방'은 예능분야 전승자의 기획·연출 역량강화와 전승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이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각자 활동하고 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상호 교류하며 새로운 공연을 창작하는 '입주 활동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보다 완성도 높은 공연을 제작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창작자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전승자 중심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했다.

특히 '숨歌가춤'은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와 국립남도국악원 초대안무자를 역임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살풀이춤 이수자 이노연, 한국전통가무악연구원을 운영하며 연출가로도 활동 중인 국가무형문화재 가극 이수자 김미경,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 안무자를 역임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살풀이춤·승전무 이수자 공민선의 진솔한 삶과 예술의 이야기를 담

은 공연 작품이다.

1장 대승무에서는 구름승무와 회심바라승무를 엮어 고요한 평안을 기원하고, 2장 사대엽 풀이에서는 가곡 이삭대엽과 평풍을 살풀이춤과 함께 구성하여 애달픈 그리움을 표현하며, 3장 춤 떨림으로 소리를 댈다에서는 북춤으로 흥겨움을 끌어내고 칼춤으로 관객의 행복과 성공을 기원한다.

이번 '숨歌가춤'의 무대에는 이태백 목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음악감독/야영), 이동훈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해금), 원원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지도단원(대금), 그리고 우리 시대에 부합하는 전통음악을 추구하는 김주홍 노름마치예술단 예술감독(구름/징) 등의 연주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취학아동 이상은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80-1524)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숨歌가춤' 공연이 관람객의 마음을 파스하게 감싸 안아줘 다시 보고 싶은 공연으로 기억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아름다움과 멋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예정이다."



기획공연 '숨歌가춤' 포스터 /장은성 기자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아시아문화전당과 국제포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서 26-28일 공동 개최... 국내 개발 문화자원관리시스템 아시아 확대 방안 모색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소장 함한희)는 오는 26~28일 3일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키르기스스탄 문화부와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22년부터 키르기스스탄 문화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학교 무형유산정보연구소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에 선정돼 인문학과 정보공학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 무형유산 미래지식시스템 ICH-Knet을 구축하고, 이를 무형유산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전승을 위한 실천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국제 포럼은 (사)무형문화연구원이 구현한 미래지식시스템(KCRMS, ICH-Knet)의 활용 사례를 공유해 국내외로 미래지식시스템의 보급과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미얀마,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등 문화 ODA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미래지식시스템 활용 가능성을 논의한다.



함한희 소장은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전세계 디지털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미래지식시스템을 매개로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전북대학교, 중앙아시아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학, 전문가와의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진안고원음악회' 30일 열린다

한국음악협회 진안지부(지부장 이승진)에서는 오는 30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진안 문예체육회관에서 봄처럼 설렘을 가득 실어 진안고원음악회를 연다.

이번 음악회는 한국음악협회 진안지부뿐만 아니라 전북음악협회의 회원들이 함께 멋진 하모니를 이루며, '새타령'과 '기차는 여덟시에 떠나네' 등 다양한 명곡과 '오빠 생각' 등 동요 무대를 더해 더욱 풍성한 음악이 함께하는 음악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생동하는 계절인 진안고원의 봄을 아름다운 선율로 장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 초등학교 손글씨 공모전

최명희문화관, 9월 17일까지 방문·우편 접수

최명희문화관은 '제17회 대한민국 초등학교 손글씨 공모전'을 진행한다. 24일 밝혔다. 작품 접수는 25일부터다.

이에 따르면 최명희문화관과 혼불기념사업회가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이 행사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글쓰기 공모전이다. 지난해 전국 202개 학교(전북 90개교)에서 1,463명의 학생이 응모했으며, 지금까지 16년 동안 4만 6천여 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특히, 블로그를 통해 공개된 수상작품들은 초등학교·대학교 등에서 글쓰기 교육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자신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일기가 대상이며, 손글씨를 뽐내고 싶은 전국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고 싶은 학생은 최명희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9월 1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 수상자에게 전라북도교육감상과 상품(20만 원 상당)을 주는 등 모두 113명의 학생에게 상장과 상품을 선물한다. 또 수상한 작품은 손글씨블로그(https://blog.naver.com/jhonbul)와 전북 지역 일간지에 연재되며, 10월 17일부터 3개월 동안 최명희문화관 마당에서 전시된다.

최명희문화관 전시미 학에서는 "스마트폰과 비대면 일상에 익숙해진 초등학교생들이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눌러 글씨를 쓰면서 자신의 글씨에 새겨진 마음을 살피고, 우리말과 우리글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284-0570)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설명회 가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4일 전주원도심상인회 및 웨딩의 거리, 객리단길 등 소상공인과 사업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쇼핑관광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여행사 화장실 지원사업, 지역 상권 홍보 지원사업, 즉시 현금형 사후면세제도와 축제 관람객 이용편의 사업 등을 안내했다.

특히, 재단은 지난 1월 30일 개소한 전북쇼핑트래블러문지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며, 지역 상권과 함께 상생하는 사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행사에 참석한 박영근 전주원도심 상인회장은 "지난 연말 시행된 전북 쇼핑위크 행사에 대해 지역 상인들 반응이 매우 좋았다"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중인 재단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어린이날 맞아 '이야기보따리 공연' 진행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이야기보따리 공연을 5일은 2시, 6일은 11시, 2시 총 3회에 걸쳐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선보인다.

올해 이야기 보따리는 창작 연희단체 광대생각의 '북극곰 이야기'로, 인간에 의해 북극곰이 멸종되는 과정을 아가 북극곰 '웅이'의 시점을 통해 이야기를 꾸민 어린이 환경 국악연희극이다.

공연은 발에 탈을 씌워 노는 전통연희 '발탈'에서 모티브를 얻어 연희자의 꿈을 활용한 인형·탈놀이인 '북극곰 이야기'는 연출가인 선영옥(극단대표)이 1인 다역으로, 총 9가지

캐릭터를 연기한다.

광대생각(공연단체)은 공연 제작과정에서 지구를 위해 예술가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버려진 옷으로 의상을 제작하거나 공연에 필요한 곱 인형은 중고거래를 통해 구하는 등 공연의 진행 과정에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실천했다.

공연 1시간 전부터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에 한하여 재활용을 활용한 화분만들기와 북극곰 비누만들기 체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1인 4매), 공연 문의는 카카오톡 채널 1:1 대화 또는 전화(063-620-2319)로 하면 된다. 관람은 전석 무료이다. /남원=김기투 기자

